

농촌 초등생에 활기 불어넣는 '겨울학교'

곡성 학부모·서울 사회복지 전공 자원봉사자 나서

죽곡초등 1학년 8명에 방학동안 생태체험·놀이 지도

곡성군 죽곡면 죽곡초등학교에는 겨울방학이지만 1학년 학생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방학중에 딱히 할 일이 없는 1학년들을 위해 학부모들과 사회복지자를 전공한 자원봉사자 3명이 '우리들 겨울학교'를 열었기 때문이다.

올 들어 4가족이 도시에서 죽곡면으로 귀촌하면서 1학년 수가 8명으로 늘어난 뒤 생겨난 작은 변화다. 학부모들은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마을에 살게 된 자녀들에게 죽곡면을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겨울학교 아이디어를 낸 학부모 이

정림(40·곡성군 죽곡면 용정리)씨는 "우리 아이들이 생태, 농촌, 소농마을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여기길 바라며 겨울학교를 준비했다"며 "학부모들은 모든 아이들이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장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놀이와 체험, 지도 등은 서울에서 내려온 사회복지 전공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매일 아이들이 해야 할 미션을 주고 시장이나 면사무소 등 마을 곳곳을 함께 구경한다.

소 나이 알아오기, 회관 가서 할머니 안마해드리고 오기, 할머니 손 그



지난 2일 곡성군 죽곡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우리들 겨울학교' 입학식.

려오기, 우체국 가서 우표가격 알아오기, 면사무소 가서 도장 받아오기,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기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일에는 아이들이 석곡장으로 구경을 가서 시장구경도 하고 가격도 알아보는 미션을 수행했다. 자원봉사에 나선 김윤지(여·21·서울신대학 3년)씨

는 "아이들이 공동체 놀이를 하면서 친구관계를 배우고 마을도 살펴봐 자신이 사는 곳을 하나씩 알아갈 때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함께 간식거리를 준비하고, 시간이 되면 아이들과 구경을 하면서 더 좋은 관계가 됐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새해 새 설계

서기동 구례군수

"친환경농·관광·장수 구례 매진"

"친환경 녹색성장, 문화관광 장수 구례 건설을 위해 600여 공직자와 군민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민선 5기 성과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14일 지난해 전남제천의 성공적 개최, 용방농공단지 기업 유치, 임산물산지유통센터·지리산 치즈랜드 건립, 전국 첫 한옥형 공용터미널 신축 등 현안을 해결하면서 구례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산단단지 신규 조성 ▲관광휴양레포츠 중심도시 기반 조성 ▲친환경 선진농업 육성 ▲북지 구례 실현 등을 올해 주요 시책으로 정했다.

먼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올해 용방농공단지 인근에 제2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생각이다. 자연드림파크(용방농공단지) 내 아이룸 계열의 15개 기업이 차례로 입주할 예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인근에 새로운 산단단지를 만들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 등 3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간접 농공단지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주 기업에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은 물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도 적극 육성할 생각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례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연말에는 산동 문화·관광형 시장도 개장할 예정이다.

남도 내륙의 관광휴양레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



용방농공단지 기업 유치

지리산 생태교육관 추진

유기농 인증 보조금 지원

는 차원에서 지리산국립공원계획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포함시키고, 야생화 생태공원과 자생식물원,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등을 연계한 체류형 산림 복합 휴양지 조성, 화암사 지구에 지리산 역사문화체험단지과 백두대간 지리산 생태교육관 건립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향후 야생화엑스포 개최를 위한 역량 강화, 문화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회관과 야외 상설공연장 건립, 호남 여성농악과 지리산 남악제의 무형

문화재 지정 등도 과제로 남아있다.

친환경 선진농업 육성을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유기농업 확대,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을 융복합한 6차 산업화 추진, 친환경 인증 농가 보조금 우선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통해 농산물 규격화와 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 등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수유, 녹차, 오이 등의 특산품은 품질을 고급화하고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도 지원한다.

군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사업 강화, 사각지대 빈곤층 지원 확대, 보건 가족 명예 선양, 노인 여가시설 확충개선, 한방 가정방문 진료 등의 시책을 내놓았다.

서 군수는 이외에도 구례읍과 마산면 지역 일대 도시가스 공급,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섬진강 자전거길 36.6km 개설, 지리산 둘레길 및 섬진강 생태 탐방로 등과 연계한 수달생태공원 조성 등도 올해 과제로 삼았다.

서 군수는 "짜리나무를 한 줍씩 묶으면 짜리비가 되고 엮으면 소쿠리가 되며, 길게 늘어 세우면 울타리가 된다"며 "군민들이 얼마나 화합하고 역량을 결합하느냐에 따라 구례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며, 군수와 공직자는 이를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구례=이진택기자 ik5826@

■ 세 일 글

"부자 농촌 만드는데 지원 최선"

박현구 보성군 농기센터소장



"보성군을 농가소득 1억원이 넘는 부자 농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제16대 소장으로 박현구(55) 전 농촌지원과장이 취임했다.

박 소장은 "FTA 시장 개방과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보성 농업과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창의·공정적 사고로 농업기술

센터 전 직원이 화합과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인 박 소장은 성격이 소탈하고 친근한 성격으로 직원 및 농민들과의 유대관계도 탄탄하다는 평이다. 보성군 미려면 출신으로 부인 지옥단(50)씨와 1남2녀가 있다 /보성=김영백기자 kyb@

여수시민 여객선 운임 50% 할인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올 하반기부터는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여객선 운임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여수시는 14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시도사지역거주인 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조례안은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로 운임 지원대상자를 현재 섬 지역 주민에서 여수시민까지 대상을 넓혔으며, 여수시 관할 섬과 제주도 승선권을 왕복으로 구입할 때 적용하도록 했다.

지원액은 운임의 최대 50%까지로, 여수시는 올 상반기까지 여수시민임을 인증하는 전산시스템을 최대한 빠르게 구축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원 항로를 제주도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여수선항이 남해안권 해상교통의 중심항만이자 관광레저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비싼 여객선 운임으로 섬 방문을 꺼렸던 시민들의 부담이 낮아져 섬 나들이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日 '만날 때는 언제나...' 등 3편 선정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 '디지털 삼인삼색' 작품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영화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디지털 삼인삼색 2013' 작품으로 일본 고바야시 마사히로 감독의 '만날 때는 언제나 타인' 등 3편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국제영화제가 매년 선보이는 '디지털 삼인삼색'은 영화제 상영과 국내외 배급을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젝트로 3명의 감독이 각각 30분 분량의 디지털 영화를 제작한다.

올해 선정작은 '만날 때는 언제나 타인'과 함께 중국 장물 감독의 '중경', 인도네시아 에드윈 감독의 '누군가의 남편의 배에 탄 누군가의 부인' 등이다.

'만날 때는 언제나 타인'은 언어적 소통을 하지 않는 부부를 통해 부부관계 속의 이방인을 그려낸다. 고바야시 마사히로 감독은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독립영화를 만들고 있으며 2007년 로카

르노국제영화제에서 '사랑의 예감'으로 대상을 받으며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중경'은 서울 거리 안의 이방인의 모습을 예뻐한 시선으로 조명하는 장물 감독의 첫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장 감독은 파리국제영화제 최고상을 받은 '두만강'과 폐사로국제영화제 대상작인 '망종' 등을 만들었다.

"누군가의 남편의 배에 탄 누군가의 부인"은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떠나는 여인의 공허함과 욕망을 동시에 담았다. 메가폰을 잡는 에드윈 감독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떠오르는 신예로 '카라, 나무의 딸', '날고 싶은 눈먼 돼지' 등으로 국제영화제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들 작품은 오는 4월 25일 개막하는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서울~전주 전용 셔틀버스 운영

작년 외국인 관광객 37% 늘었다

전북도가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전주 외국인 전용 셔틀버스'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서울~전주 외국인 전용셔틀 버스를 이용한 외국인이 8131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는 전년도(5930명)에 비해 37.1%나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36.5%로 가

장 많았으며 중화권 22%, 동남아권 19.1%, 유럽 4.1%, 북미 3.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 버스에 탑승한 외국인 가운데 80%가량이 한국에 오기 전, 자국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탑승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돼 전주를 포함한 전북도의 전통 관광지가 외국에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전북



'숲속 놀이터' 운영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석원)가 올바른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주·진안·장수군 등 3개 지역 3000여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3월부터 숲속놀이터를 연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부안 사회단체 보조금 멋대로 쓴다

일부 단체 친목성 경비 등 부적절 사용 드러나...군, 솜방망이 처벌 그쳐

부안군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단체들이 사업 목적과 상관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군이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나 삭감 없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으로 51개 단체에 2억5000만원을 집행했으나 일부 단체들이 이를 친목성 경비 등 부적절하게 사용해 군과 전북도의 감사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해 군청 감사팀은 시민사회단체 7곳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감사하

면서 ▲사무실 임대료와 중식비 지급 ▲산림사찰이나 회원공로패 구입 ▲지출 증빙 서류 미비 또는 사용내역 불일치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시행 ▲운영비 과다 집행 ▲전용카드 미사용 ▲정산검사 미이행 등의 문제점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또 전북도가 실시한 감사에서도 일부 단체가 단합대회 및 관광성 경비 등에 보조금 1억2254만원을 사용했다가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군내 친목성 모임이나 관련단체로 의심되는 단체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도 군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 잘못

된 보조금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의적인 보조금 부당 사용이라면 지급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들 단체들이 시정조치나 교육 후 다음연도에도 보조금을 지급 받는 '면피용 감사'라는 것이다.

부안군 신규제 행정자치과장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아직 접해 보지 못했다"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안군은 이달까지 2013년도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 다음달 말 지급 단계를 선정할 방침이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

단신

초등 1·병설 유치원 3곳 3월 새학기 개강

전북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신축 공사가 진행됐던 초등 1곳과 병설유치원 3곳이 3월 새학기에 문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군산 오식도초등학교는 지하 1층 지상 4층, 24학급 규모로 3월 1일 개교한다. 또한 오식도초 병설유치원과 응흥초 병설유치원, 무너초초 병설유치원도 3월에 문을 연다.

도교육청은 "하반기에는 7학급 규모의 가정 전라유치원과 전주유치원 등 단신 유치원 2곳을 9월 1일자로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개교를 목표로 전북 혁신도시에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이달 초에 착공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관광공사, 전북권협력단 내달 15일 가동

한국관광공사 전북권협력단이 2월 15일부터 신설 가동한다.

전북권 협력단은 기존 호남권 협력단에서 광주전남권 협력단과 분리해 전북도 내에 설치된다.

협력단은 전북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상품 기획, 개선키 사업 지원,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1월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 이후 관광공사와 전북권 협력단 신설을 협의해왔다.

관광공사는 전북권협력단 초대 단장에 이종린 관광협력관을 발령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군산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배치

군산시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소광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장보기 도우미를 운영한다.

장보기 도우미는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공설시장에 6명, 수산물센터에 2명, 신영·역전·명산·나운주공시장에 1명씩이 배치된다.

이들은 고객들의 소광 물품 운반지

원 서비스는 물론 전통시장의 공동시설과 정비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홍보활동도 지원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장보기 도우미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업무 및 친절교육을 실시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공공시설물 등 에너지절약 홍보 나서

남원시가 한파로 사업장과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 홍보에 나섰다.

시는 다음달 22일까지 공공청사 건물에 대해서는 실내온도가 18도 이하인 경우에만 난방기를 사용토록 했다. 가로등, 공공 체육시설물 등은 사

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계약전력이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력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협조문을 발송했다.

피크시간대인 오후 5~7시까지의 네온사인, 광고 등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